

주제:교회의 영성을 위한 기도목회론

강사:이정현 박사

## 1. 서론

1)문제제기/현대교회는 물량주의에 깊이 빠져있다. 돈이면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선교도, 전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십억을 들여 예배와 교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마련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교우들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80년대의 교회들은 산기도, 새벽기도, 골방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간구했으나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한 탓인지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있었던 시기에는 영성이 진작되어 부흥이 일어났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번듯한 외향과 달리 하나님과의 교제 빈곤으로 인하여 영성이 메말랐고 아울러 부흥의 불길이 사라졌다. 교회의 물량주의 사조는 교회의 영성을 흐려놓거나 멸절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교회의 영성이 흐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이제는 ‘느리게 살자’ 혹은 ‘한 박자 천천히’라는 외침이 호응을 얻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교인들의 현 주소이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바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쫓아 교회 안에서의 종교생활 또한 매 주일 새로운 프로그램의 행사 준비로 눈, 코 뜰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 할 것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지낸다.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길이 없음을 안다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중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은 또 다른 강력하고도 매력적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교회의 기도를 가로 막는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읽어냈다는 과학적 개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물주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곧 신이다’라는 이단 사설은 점차 그 세력의 확대와 함께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교인들에게 조차 과학의 힘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보다는 먼저 인간을 의지하고, 과학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게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이며, 죄악 된 바벨탑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스스로 전능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과 같다. 이는 피조물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린 망각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교만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한다.

2)중요성/교회에 생동적인 활동이 없고 성도들의 형식적, 비 신앙적 태도로 교회 부흥이 멈추어 있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기도의 근원적인 절박감을 느껴야 한다. 교회의 영성 회복

의 지름길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목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한다. 이신웅 목사는 그의 책에서 기도목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이신웅). 사역에 힘을 주는 것은 기도라고 하면서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후에 3-5분씩 기도하게 했고, 기도훈련과 기도 부흥회를 자주 가졌다고 한다. 둘째로 기도는 교회를 영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매일 교회에 들어서 기도하게 함으로 기도자가 많아졌으며 교회가 영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셋째로 기도는 교회를 평안케 하고 어두운 영으로부터 지키며 부흥케 함으로 세 이레 0시 기도회나 담임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했다. 넷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생겨서 충성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교회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양적인 성장과 재정적인 변화도 가져온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런 입장에서 기도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도 동일한 이유로 기도목회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겠다.

## 2. 기도의 신학적 기초이론

1)정의/기도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학자들의 말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도를 응답의 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머레이, 무디). 둘째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다(루이스, 바운즈, 스피어). 이것은 앞의 정의보다 보다 차원 높은 정의라 생각된다. 이 정의에서 주의할 점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의 의사소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와 ‘주여 말씀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가 같은 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사도행전 6장 4절(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을 근거로 기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다.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이전에 더욱더 시급히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도와 연결시켜 놓은 것은 어쩌면 말씀이 효과적으로 선포되려면 우선적으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닐까?

2)대상/자연만물과 인간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며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나 성자들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에 관해서 칼빈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자이며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79문의 답, 제2헬베티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등에서 다른 신과 성자들, 동정녀에게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의 대상임을 말한다). 티리히(P. Tillich)는 여기서 우리기도의 대상이 한 위라고 할 때 일체가 어떻게 가능하며 한분에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위의 분리가 가능한가를 질문하면서 결국 기도의 대상문제를 취급하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만다(조직신학 3권). 기도는 각 위에게 드릴 수 있으나(성령께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다) 신약성경 입장에서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이정현).

삼위일체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그분은 전지하셔야 하고 전능하셔야 하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만 한다(W. Spear). 만약 이 중 어떤 요소라도 빠진다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응답하실 수도 없다.

3) 예수이름으로/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라고 하나 유럽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몇 년 전 콕스(H.Cox) 교수가 내한하여, 기도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던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후에 한 사람이 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콕스는 ‘그것은 기본이 아니냐’고 대답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다(요14:14).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평판’, ‘인격’, ‘사역’, 그리고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Louw & Nida).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의 그 이름은 하나님과 예수 자신을 나타냄으로(Mueller) 이것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인격과 일치하여 그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의 인격, 중보사역에 대한 의존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시와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을 수반한다. 비록 앞의 기도가 황설수설해도 예수님의 이름은 확신 있고 힘 주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은행 청구서에 도장 찍는 행위).

이 같은 기도의 기초이론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해야 개인기도이든 공기도이든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런 기초지식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만들며 교회의 영성을 높이는 작은 주춧돌이 된다.

### 3. 기도목회의 실재

#### 1) 예배안에서

##### (1) 공기도의 종류와 내용

.개회기도/묵도나 기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승경으로서의 기도여야지 기원일 필요는 없다. 요즘은 짧은 기원과 감사가 주 내용이다.

.회개기도/종교개혁자들(부처, 칼빈, 나스)이 중요시했던 기도로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고백과 용서와 사죄의 선언으로 진행되나 국내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요소는 생략하는 편이다. 몇 가지 실제적 방안으로는 첫째, ‘한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범죄 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는 멘트로 조용히 기도하게 한다. 둘째, 한 사람이 지난주 주일 낮 설교 본문을 읽고, 목사가 요약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자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통성으로 기도하게 한다. 셋째, 목사가 공적인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인 죄는 회중이 함께 조용히 회개하게 한 후, 목사가 사죄의 선언을 하고 기도를 마무리 한다(곽선희).

.중보기도/그리스도인이 타인의 영적, 신체적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초대교회의 신앙 문서인 디다케로부터 시작하여 종교개혁자들의 예식서에도 나타나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도 9쪽 분량의 기도 모범을 수록해 놓을 정도로 중요시 취급된다. 예배 시 목사 자신이 회중의 중보자로서 회중의 요구를 청원할 수 있고, 초청기도로도 할 수 있다.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주보에 3가지 중보기도 제목(국제, 국내, 교회)을 기록해 놓고 주어진 기도 제목을 따라 낮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한 후 목사나 준비된 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조명을 위한 기도/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를 위하여 성령의 조명은 필수적이다. 팔머는 ‘계시자와 해석자이신 성령은 말씀을 영감하셨고 메시지를

열어 보임으로 날마다 더 잘 이해하게 하신다'고 했고(B. M. Palmer), 디센은 '성경을 영감 하신분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사람들의 마음을 조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H. C. Thiessen). 이 같은 진술에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신자들 마음에 비추는 역할을 하심을 알 수 있다. 성경봉독 전 공중기도를 통하여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

.설교 후 기도/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성령께서 가꾸시고 열매 맺도록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이다. 조명을 위한 기도와 이 기도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는 성경해석과 깨달음에 강조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적용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설교의 요약이나 재 설교가 되어서는 않된다.

.헌상기도/헌금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강요됨이 없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봉사적 행위이다. 여기에 따른 헌상기도는 은혜의 감사와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드린 자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이다.

.주기도문/모범기도를 예배의 한 순서로 도입할 때는 후반부에 삽입하는 것이 좋고 성찬이 있을 때에는 성찬의 서두에 둔다(Didache). 이 기도를 단순한 암송이나 노래로 할 수 있으나 노래로 할 때에는 천주교적인 성격의 내용은 개사하여 부르는 게 좋겠다(큰 죄를 모든 죄로).

.성찬기도/성찬기도에는 순서와 내용에 따라 네 가지가 있다. 성별기도, 분병기도, 분잔기도, 대감사기도이다. 이 기도들 중 천주교에서는 epiclesis가 절정이고 개신교에서는 대감사기도가 절정이 된다.

.축도/두 곳의 축도 본문(민6:24-26, 고후13:13)이 있는데, 전자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 모두, 특별한 보호, 은혜와 평강이며 후자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다. 이 기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의 주체와 복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동사의 말미를 선언 형이 아닌 기원 형으로 해야 한다.

## 2)실재 프로그램

(1)기도학교/1개월에 걸쳐 규모 있게 모집 광고를 한다(일시, 장소, 강의 내용, 강의 과정, 주의사항). 한 반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적당하다. 예상인원이 많으면 주, 야간 반으로 나눌 수 있다.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12주에 걸쳐 배우는 과정이다. 한주에 1회씩 모이고 한번에 두 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12주 동안의 강의 내용(지금은 “기도훈련학교”를 쓰고 있으나 조만간에 집필 예정에 있다)은 기도훈련의 중요성, 기도의 의미와 본질, 성경속의 기도, 기도의 내용과 종류, 기도훈련 모델(자화상 기도), 기도훈련 모델(파장형 기도) 기도훈련 모델(주기도문 기도), 기도훈련 모델(성막형 기도), 기도자의 태도, 기도의 생활화, 기도와 성령충만, 기도와 교회성장 등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도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이론을 충분히 세울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훈련을 할 수 있다.

(2)중보기도팀 운영/기도학교나 중보기도학교를 마친 사람 중 모집과정을 거쳐 팀을 구성한다. 팀장과 서기는 지도자가 미리 정해주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에 관해 교육하는 것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익하다. 팀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사회, 교회 그리고 개인들에게서 중보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다. 현재 가장 이슈화 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한 문장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각 기관의 부장 및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면서 기관들의 시급한 사항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된다.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기도 제목을 발굴하되 이것은 구역장과 담당 교역자와 상의하면 좋은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다. 팀장의 또 다른 임무는 기도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다. 서기의 주된 일은 팀장이 건네준 기도 제목들을 분명하고 호감이 가는 문장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다. 또는 정리된 글을 복사하여 기도 시 그것을 보고 기도자들로 중보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원들이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비중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목들을 순서별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회의 시간과 장소를 연락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본 교회 두개의 중보기도팀(아브라함, 에스더)은 비교적 팀장과 서기 및 팀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 편이며 그러한 기도 모임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본 교회에는 기능별 중보기도팀으로 ‘전세 중보기도팀’이 있다. 전세라는 말은 ‘전도와 새가족들’을 줄여서 한 말로,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조직했다. 이 기도팀은 주로 세 부분의 기도를 한다. 먼저는 준비기도회다. 이때의 기도 내용은 회개기도와 한 지역(개인)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원수의 방해를 물리치시며, 전도자들이 담대히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전도 목표를 위하여 기도한다. 둘째의 지원기도회는 전도팀이 어느 아파트나 개인에게 찾아갔을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제시 때 사단이 말씀을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전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후방에서 지원사격하는 기도이다. 전도자들이 돌아 올 때까지 교회의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한다. 세 번째는 감사와 양육을 위한 기도인데, 전도를 통하여 새가족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왔을 때, 교역자들을 통해 카피한 카드를 전해 받은 팀장은 그 주간에 모여 귀한 전도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람들이 5주 동안 양육되어 구역에 편성 될 때까지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자에게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양육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또한 새가족들이 작 정착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것은 사역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일로 실천을 강력히 권하고 싶다.

(3)새벽기도회/평일 새벽기도회도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기도제목과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함이 유익하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월 첫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이다.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교구와 지역 및 구역을 통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저녁 10시면 취침하고, 저녁에 물을 많이 먹고 자고, 구역 식구들끼리 모닝콜을 하게하여 같이 참여시킨다. 한 기관에서 주관하게 하고 맡은 기관의 회장이 사회, 총무가 기도, 서기가 성경봉독, 회원전부가 특송, 그리고 몇몇 사람이 차량봉사와 안내를 맡는다. 목사가 3일 동안 주제를 정해서 설교하고 현실적인 기도제목과 2-3개 정도 제시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게 한다.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계획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중략.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권사님들에게 부탁하여 호박죽을 쑤어 대접하거나 우유와 빵을 준비할 수도 있다. 물론 주최하는 기관에서 준비하면 경비 문제는 어려움이 없다. 매월 3일씩 있는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최하는 기관의 영적 각성과 교회 전체의 기도하는 분위기, 개인들의 기도응답, 교회 부흥의 결과가 있다.

(4)심야기도회/어느 교회나 심야 기도회를 할 것이나 어떻게 하느냐가 효과적인 기도회의 관건이다. 본인은 전체 기도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은 저녁 9시에 모여 30분 동안 찬양을 한다. 둘째 부분은 30분 동안 말씀을 듣는다. 마지막은 1 시간 동안 기도 한다. 찬양은 잘 훈련된 찬양팀에게 위임하고(이때의 찬양팀은 전문성과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설교는 부 교역자들이 하고(며칠 전까지 설교 내용을 원고로 확인한다) 기도회는 담임 목사가 인도한다. 기도회 인도 방법으로는 bidding prayer 방법, 과장형 기도방법, 깃발형 기도방법, 그리고 때로는 별 때 방법, 불을 끄고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룹기도 방법 등을 사용한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 병 나은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 받은 사람도 있고, 기도회가 은혜스럽다고 등록한 사람도 있고, 은혜 받아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 (5)기타

- .고난주간-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회
- .성령강림절-성령대망 기도회
- .추수감사절-영적 추수를 위한 기도회
- .원수가 역사할 때-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질 때, 부정적이며 남의 말과 공격적인 말이 많을 때.
-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부도, 각종 사고, 천재지변, 영적 침체기.
- .전체 교사기도회-월 1회 정도, 유치부 교사부터 청년부 교사까지 다 함께 모여, 교육 부서의 문제들과 학생들과 교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 한다. 특히 부서의 행사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로 함께 돕는다.
-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교역자들이 모여 주일 예배만을 위해 기도한다.
- .중직자 비상기도회-교회의 중요한 일이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비상 기도회를 소집한다.

## 4. 결론

복음전파로 인한 초대교회의 부흥은 현대교회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현대보다 인적 자원도 부족하였고 전문 사역자도 더 적었으며 전도자와 대상자의 지적, 문화적, 교육적 배경도 훨씬 열악하였다(Green).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를 통한 교회의 영성회복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하다. 기도를 통해 성령충만하였으며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 안에서의 담대한 복음전파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고 교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서 가게 되었다.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기를 맞고 부흥이 멈춘 것은 교회 안에 물질만능주의가 유입된 결과이며, 육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쁘게 뛰어다닌 결과이며, 또한 인간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 줄 것 같은 과학문명의 획기적 발달에 현혹된 결과이다. 이는 기도를 약화시키고 영성을 흐리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들이며 그 결과로써, 교회는 영적 암흑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으며 또한 개략적인 몇

가지 방법도 설명하였다. 현재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직까지 현저히 들어나는 결과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기도목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 소망하기는 기도목회를 통해 영성이 회복됨으로써 초대교회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시기 바란다. - 끝 -